



**전북대병원, 환자경험리더 '봄' 위촉**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이 환자중심 의료문화 확산을 위해 활동할 환자경험리더 '봄' 66명을 선정, 14일 본관 모야홀에서 위촉식을 거행했다. 위촉식은 유희철 병원장과 조동규 고객인원지원실장 등 200여명의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위촉된 66명의 환자경험리더 '봄'은 병원 근무경력 10년 이상의 해당 부서 1년 이상 근무자로 각 부서장의 추천으로 간호부서 45명, 검사 및 치료부서 10명, 진료지원부서 9명, 건강관리센터 1명, 치과병원 1명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이날 위촉을 시작으로 환자경험리더로 활동한다. 환자경험리더 '봄'은 앞으로 환자경험리더 양성교육을 통해 환자경험전문가로 양성되며 이를 통해 각 부서원들에게 응대 교육과 모니터링, 응대코칭, 사내강사 등의 환자경험향상을 위한 다채로운 활동을 하게 된다. 이들은 특히 환자경험 향상을 위해 전북대병원에서 자체 제작한 고객응대매뉴얼 '봄 WAY'를 기반으로 만든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및 상황별 설명법, 환자관리보장 지침을 활용해 현장에서 고객만족 업무를 수행하는 길라잡이 역할을 할 예정이다.

유희철 병원장은 "오늘 위촉된 66명의 환자경험리더 '봄'은 병원의 환자중심 의료문화를 이끌어가는 선발대로, 환자경험 전문가이자 리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봄'을 통해 우리 병원이 보다 내실 있는 환자중심 의료 실현을 위한 병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무엇보다 환자의 마음까지 치유하는 따뜻한 사람중심의 병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경아 기자



**비전대,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사업결과 평가**

전주비전대학교 3단계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 단(LINC 3.0)은 14일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1차년도 사업결과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LINC 3.0 사업단은 지난 7월 도내 우수 산업체들과 8개의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를 선정, 교내 ICC(기업 지원센터) 특허분야의 인력과 기술을 통해 총 2억6천만원의 사업 예산을 투입하는 과제를 수행했다. 이번 성과평가를 위해 평가위원은 전원 외부 전문가로 초청해 △사업수행과정의 적정성 △연구목표의 달성도 △사업 결과물의 우수성 및 활용가능성 △지역경제·지역사회 공헌 기여도 등을 진행했다. 성과평가에는 8개 과제의 책임교수 및 참여기업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해 이번 과제를 통해 도출된 산학협력의 결과물(지식재산권, 시제품 등)에 대한 향후 핵심기술 확보 및 기술 사업화의 가능성에 대해 평가가 이어졌다. 한편 성과평가를 마친 후 위원별 개선방안을 논의하며 대학과 기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소통의 장으로 이어졌다. 최승훈 단장은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를 통해 선정된 8개 과제는 특허출원 및 시제품 제작 등 소기의 성과를 냈다"고 전했다. /정은성 기자



**남원소방서, 쓰러진 환자 보호한 학생 표창장 수여**

남원소방서(서장 소재실)는 지난달 17일 남원시 쌍교동 승사교에서 의식을 잃은 환자를 119에 신고 후 회복을 위해 노력한 김민준 학생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사고 당일 방학차 할머니께 방문중이던 김민준 학생은 인적이 드문 승사교에서 사티이 쓰러진 것을 발견하고 제빨리 환자 상태를 파악 후 119에 신고했다. 영하의 날씨에 환자의 체온유지 어려워 자신의 옷을 벗어 환자에게 덮어주는 등 구급대 도착 전까지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환자의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 순천 금강고등학교 2학년 김민준 학생은 "사람이 쓰러진 것을 보고 놀랐지만 주변에 인적이 많지 않은 곳이라서 내가 나서야겠다고 생각했다"며 "환자분이 추운 날씨에 빨리 발견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농업마이스터대학 힘찬 출발**

16개 전공 320명 신입생 입학식 개최... 첨단화 대응 교육 과정 운영

전북도는 농식품부의 지원으로 농업 분야 최신 기술과 전문 경영 능력을 갖춘 장인(匠人)을 육성하는 제8기(2023~24) 전북농업마이스터대학 입학식이 14일 한국농수산대학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 정현출 한국농수산대학교 총장, 신입생 320여 명이 참석해 새학기의 힘찬 출발을 함께했다. 입학식은 내빈 축사, 신입생 대표 선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순으로 진행됐다. 제8기 입학생들은 2024년까지 전북농식품인력개발원, 전북대학교 한국농수산대학교 등 3개 캠퍼스에 개설된 16개 전공 과정(전공별 정원 20명) 중 1개 전공을 이수한다. 전공별로 2년 4학기 32학점(480시간)을 이수하면 농식품부장관 명의의 졸업장이 수여된다. 제8기 캠퍼스별 운영과정을 살펴보면 △전북농식품인력개발원(본부에서 8개 과정 수도작, 고추, 딸기, 시골



18기(23~24) 전북농업마이스터대학 입학식

채소, 블루베리, 양봉, 청년CEO 딸기, 청년CEO 토마토) △전북대캠퍼스에서 4개 과정(한우, 양돈, 양계, 포도) △한국농수산대캠퍼스에서 4개 과정(인삼, 약용작물, 친환경채소, 사과)을 운영할 예정이다. 전북농식품인력개발원 관계자는 "농업 분야의 스마트화, 첨단화 추세에 대응하고 도내 농업 환경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주임교수, 강사진과 머리를 맞대고 교육 커리큘럼을 세웠다"고 말했다.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는 "전북도가 국내 농업을 선도한다는 명성은 농업인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대한민국 농생명산업 수도 전라북도"라는 비전 실현에 중추적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농업마이스터대학은 2009년 설립한 이래 1기부터 7기까지 1,7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이들이 도내 농업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오경수 완산소방서 소방관, 화재진압 대형 참사 막아**

"화재연기에 따른 사망감축에 몸이 먼저 반응해 무자정 올랐습니다" 큰 화재로 이어지기 전 빠른 사고 현장 대처 능력과 현장 화재조치를 보인 오경수 소방사가 연일 화재의 인몰에 오르고 있다. 오 소방사 그는 지난 13일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중 전주시 삼천동 소재 상가건물 옥상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 오르는 것을 목격한 즉시 위험을 무릅쓰고 화재 장소로 뛰었다. 화재현장 5층 옥상에서 정원수 및 테이블 등이 타고 있었



오경수 소방관

으며, 인근 구조물로 불이 옮겨붙기 직전의 급박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다. 오 소방사는 재빠르게 건물 옥내소화전을 사용해 소방용수를 뿌리며 화재를 진압했다. 불이 난 상가는 사우나와 마트 등이 입주한 상태의 건물로 초기진화 실패로 이어지면 이용객의 큰 혼란과 인명피해 등 자칫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상가였다. 오 소방관의 신속한 현장대처로 큰 피해를 막은 것이다. 오경수 소방관은 "소방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소방관을 향한 도민들의 믿음과 신뢰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농협 모악지점 준공식 개최... 지역 랜드마크로 자리매김**

전주농협(조합장 임인규)은 14일 효천지구 인근 삼천동 공판장 인접 부지에 모악지점을 신축하고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임인규 조합장을 비롯해, 김대호 농협전주원주시군지부장, 전북관내 농축협조합장, 전주농협 임원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모악지점은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가 278번지 내 대지 1,585㎡(480평)에 연면적 917㎡로 지어진 지상 3층 규모의 건물로 약 9개월의 공사 끝에 완공됐다. 특히 도내에서는 볼 수 없었던 유니크한(아노다이징) 디자인을 적용해 전주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한 건물외관으로, 1층엔 금융점포(모악지점), 2-3층은 판매시설로 사용될 예정이며 20여 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했다. 이번 모악지점 준공은 지역 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근접해 있는 과일·채소 공판장 및 모악주유소 시설이 함께 마련돼 농민조합원 및 지역민의 경제·사회적 구성체 역할을 다한 것으로 예상된다. 임인규 조합장은 "금융과 농산물 공급 주유 혜택까지 조



합일됨들과 시민들에게 다양한 혜택과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뿌듯하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전주농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전북조달청, 혁신제품 지정 업체 찾아 애로 청취**

전북지방조달청(청장 정길용)은 익산시 소재한 혁신제품 지정 업체인 현대농기계(대표 박옥란)를 14일 방문해 생산현장을 둘러본 후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2021년도 혁신제품 '우수연구개발제품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된 현대농기계의 '일관작업이 가능한 수집형 마늘수확기'는 트랙터 부착형 견인식 수확기로서 작물을 굴취, 이송, 선별, 수집까지 한번에 가능하며, 국내 최초로 이송부체인과 선별부 체인이 고무로 코팅이 되어 있어 작물의 손상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제품이다. 혁신제품이란 국가가 우수연구개발 성공제품, 상용화 전 시제품 기타 기술인정 혁신제품을 정부에서 시범사용 및 판로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혁신제품 지정 후 3년 동안 수의계약(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이 가능하다. /임종은 기자



**전북은행, 군산시에 식료품 꾸러미 100상자 기탁**

군산시는 14일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이 식료품꾸러미 100상자(300만원 상당)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전북은행은 지난해 12월 겨울철 난방 취약계층을 위해 방한(warm)키트 100세트 기탁에 이어 취약계층을 위해 식료품 꾸러미 100상자를 기탁했다. 전북은행은 사회공헌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상생에 적극 앞장서고 있으며 명절, 연말연시 나눔캠페인, 희망의 공부방 지원사업 등 관내 소외계층을 위한 지속적인 나눔 행보를 보이고 있어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군산=이재춘기자



**전북은행, 진안로타리클럽, 사랑의 선물 나눔**

전북은행 진안지점(지점장 공명숙)은 450만원 상당의 선물꾸러미를, 진안로타리클럽(회장 오성두)은 100만원 상당의 밥솥, 이불, 라면을 관내 저소득층에게 전해 달라며 14일 진안군에 기탁했다. 전북은행 진안지점은 "앞으로도 이웃과 온정을 나누면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전북은행이 되겠다"고 말했다. 또한 진안로타리클럽은 "회원들과 뜻을 모아 후원을 하게 되었고, 어려운 이웃에 도움을 주고자 생활용품 기탁하게 됐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기자



**재경무주향우회, 고향사랑기부금 후원 행렬 이어져**

올 1월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되면서 재경 향우회들의 무주군에 고향을 응원하는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이달 4일 재경안성면민회의 신년회예회에 이어 11일 진행된 재경무주읍민회의 신년회에서 무주군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제도 활성화를 기원하며 응원했다. 황인홍 군수는 "무주군에 애정을 갖고 응원해주신 재경향우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며 "무주군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해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찾고 싶은 무주, 머물고 싶은 무주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전했다. /무주=전문선기자



**고창 남구미울,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성금 기부**

고창군 고창읍 남구미울(이장 표주원) 주민들이 지난 13일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이재민 구호활동 지원금(30만원)을 기부했다. 고창읍 남구미울은 매년 이웃돕기 성금을 비롯하여 평소 마을 주민들과 함께 다양한 나눔을 실천해오고 있다. 지난해 연말에도 마을 성금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식료품을 전달하는 행사를 진행하는 등 꾸준히 이웃사랑을 실천해오고 있다. 표주원 남구미울 이장은 "지진 피해로 지원이 절실한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마을 주민들과 함께 마음을 모았다"고 말했다. 조경호 고창읍장은 "남구미울 주민들이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위기 상황을 위해 모아주시는 따뜻한 마음에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상주시 농기센터, 고향사랑 상호 기부**

고창군은 지난 13일 자매결연도시인 경북 상주시를 방문해 고향사랑기부금을 상호 기탁했다고 밝혔다. 고창군농업기술센터 현행열 소장은 상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조인호)를 방문해 양 지자체에 서로 고향사랑기부금을 각각 300만원씩 기부하고 고창과 상주의 농특산물(담례품) 교환식도 가졌다. 현행열 소장은 "고창군과 상주시의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로 상호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또 "2023세계유산도시 고창 방문의 해"를 맞아 상주시 농업인단체와 품목별 연구모임의 현장견학 대상으로 고창군을 방문해 줄 것을 적극 당부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